

# 노들 고민

제 57호

2005 · 7

노들장애인야간학교 Nodl Popular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밑불이 되고 불씨가 되자

# 바람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16-3 정립회관 교육관 3층 · 연락처 02)446-9101(늦은 6시~10시) · 발행인 박경석 · 편집인 이일찬 ·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nodl.or.kr> · E-mail master@nod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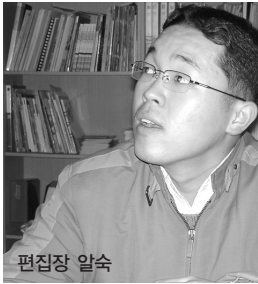
12살 생일을 축하한다.

네 꿈이 무럭무럭 자랐으면 한다.

그리고, 그 옆에 항상 내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

-노들에 12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

# 당신에게 노들은 무엇입니까?



## #1 노들?

얼마 전 홍X 교사가 “형은 노들에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네요.”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채 이틀이 못돼서 송X 학생이 “너한테 노들은 의미가 있냐?”라고 말했다. 몹시 당황스러웠으나 어차피 답이 없는 질문이라 여기며 그냥 넘겼다. 노들야학 3년차. 편해지고 무던해진 만큼 넘기 힘든 울타리들이 선명해 졌다. 노들은 나에게 무엇인가????

## #2 취향

고등학교 이후 처음이니 족히 10년이 다되어 만난 친구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문득 내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느낌이란 것은 억울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다. 다만 그다지 즐겁지 않은 그런 느낌이다. 최근 몇 년 새 몇몇 술자리에서 종종 이런 느낌을 받았다. 차에 연식이 어찌저찌구, 차 후면 반사경에 네온을 달아서 멋지다는 등, 앞으로 몇 년안에 차를 장만 하겠다는.... 이미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친구가 그것보다 아파트 값이 부쩍 뛰었다는 아마도 어디쯤에 땅을 사두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풀어 놓을 즈음 나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그런 게 중요해.... 재미없잖아.” 그러면 어김없이 술자리는 여기서 종이다. 친구들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만날 일이 없겠지. 항상 후회 하지만 그렇다. 심통만 가득차

서 점점 다른 삶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못된 인간이 된듯하다. 노들에 점점 빠지는 것은 노들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마냥 편하고 즐거운 노들은 내 삶을 온전히 거슬리지 않게 받아주는 해방구 중 하나다. 구지 말로 표현하라면 노들은 딱 내 취향이다. 멋진 것들 투성이인 노들. 일상이란 것을 알았고, 우직함 이라는 말을 배웠다. 교사들이, 학생들이 쏟아 내는 말들 하나하나 부딪치는 하나하나 족족 멋진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노들은 동경이자, 삶에 지표 중 하나라 해도 손색이 없다. 그럼에도 자꾸 다른 인생들과 부딪치는 못된 인간이 된 것도, 노들의 일상이 조금은 부담스러워진 것도 마냥 타고난 심통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비장애인교사로 노들에 있는 것. 노들이 너에게 뭐냐? 라고 물으면 좋아한다고 하겠지만.... 좋아한다고 그렇다고 그렇지만 좋아하는 것 그 이상은 뭐냐.... 좋아하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 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친다.

딱 내 취향인데... 좋아하는데... 그게 다다.

## #3 기억

사람을 떠나 보낼 때 가장 아픈 것은 함께 했던 세월의 기억이다. 함께했던 기억은 불쑥불쑥 토해내는 한숨처럼 덧없이 흐르는 눈물처럼 몸 깊숙이 베어 이미 좋아한다기보다 내 몸에 일부가 되어버린 그래서 불쌍한 그렇지만 살아내야 하는 그런 것이다. 가끔 비장애인교사로 노들에 남는 것이 당혹스럽고 권태로와 진다. 그렇지만 좀 더 사랑하다보면 노들이 내 몸뚱이처럼 변해가지 않을까 한다. 꼭 같은 크기의 상처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모양의 한이 차곡차곡 쌓여가면, 같이 깨지고 같이 울고 같이 웃다 보면 내에게도 노들이 좋아하는 그 무엇보다 다른 것이 되지 않을까 한다.

노들이 내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소중한 삶에 심통부리지 않고, 내 소중한 노들에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From. 노들에 기억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알숙

이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특집 기사가 실렸다. 노들에 꿈이 한발짝 더 나아 갔다.

묻고 싶다. 당신에게 노들은 무엇 입니까?

노들바람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발입니다.



6

## 이 야 기 구 성

### 노들바람

[노들바람을 여는 창] 02

### 우리안의 이야기

노들의 일상 04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김도현 동지를 만나 ... 08

보고싶은 얼굴들 11

12주년 개교기념 열린강좌 13

개교12주년 기념식 15

다시 시작되는 버스타기 20

### 함께 하기

2005년 3, 4월 후원자 명단 23



14



20

## 교장쌤

### 항상 바쁜 교장쌤 어깨가 또 무거워 지셨습니다



항상 바쁜 교장쌤 어깨가 또 무거워 지셨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지역준비위원장' 도대체 몇 번째 직함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어느 때 보다 결의의 날을 새우시는 것이 많이 바쁘고 아프실 듯. 힘내시라고 전화 한통 정도는 해 줍시다 들...



## 영애 VS 알찬

또 붙었다. 우리반 싸가지 알찬과 히스테리 대마왕 영애의 대판 막가파식 전투. 잠시 잠깐의 평화를 깨고 다시금 전쟁 선포. 전쟁 통에 눈치만보는 승숙, 대영, 선동.....수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산으로 가는 거야~~~



## 방학이다

우린 자유다!!!! 승화,  
순성, 정은~~ 이놈에  
정규직 교사들 신났다.



## 윤희

저 천안 내려갑니다. 아무  
래도 다음 학기에 의사샘을  
보기 힘들 듯. 다만 그녀가  
변듯한 의사로 거듭나길....



## 고을

아무도 예견치 못했던 그  
의 깜짝 컴백. 그냥 놀러왔  
어~~~~ 그냥 놀러 왔다더  
니 슬그머니 다시 복학해 버  
렸다. 좀더 능글맞게 업그레  
이드 된 을이 형의 행각들을  
유의 깊게 지켜보자



## 용국

이제는 잡아야 한다.... 그  
를..... 보시는 분은 즉시 노  
들야학으로 신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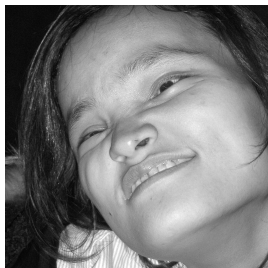


## 불수레반힘내라!!

요즘 불수레반은 많이 침체 분위기입니다. 더운 날  
씨와 얼마 안남은 검정고시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불수레반 여러분 힘을 내세요.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  
는 불수레 반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각자 사정들은  
있겠지만 야학생들도 우리 활기차게 함께 합시다. 더  
운 여름 날씨에 불수레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길....

## 은영

회장님이 노들자립생활  
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에  
서 현정이와 동거를 시작 하  
셨습니다. 자립생활에 성큼  
한걸음 내딛은 그녀. 권투를  
빈다.



# 노들의 인생

## ‘진보적 장애운동 연대체 건설을 위한 활동가대회’



7월 13일 ~ 7월 15일 | 충북대학교

노들을 소개하는 대문 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 나를 도우러 오신 거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 해 봅시다.” 노들이 시작 이래로 꾸어 온 꿈. ‘진보적 장애운동연대체’ 건설은 해방을 향해 한걸음 내딛는 노들의 꿈과 꼭 닮았다.



## 전국 장애인 활동가 대회

첫날 출발하기 위해 아차 산에 갔다 가서 보니 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도 기다리고 사람들은 점점 많이 오고 차도 왔다 2박 3일에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전동 휠체어가 많아 가지고 가는 길에 조금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재미있게 출발했다. 청주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강당에 가서 여러 단위를 하고 인사도 하고 옛날에 투쟁 현장에서 본 사람들 하고 이야기도 했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서 반가웠다.

본격적으로 활동가 대회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불편한 점이 조금 있었다. 강당하고 식당 하고 너무 멀어서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첫째 날에는 이불과 베개 없었다. 전국에 장애인들이 장애 운동을 위하여 한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힘을 합쳐서 장애 해방을 위하여 싸우기로 했다. - 문주 -

한 더위하는 날씨에 지쳐  
다들 정신이 몽롱했다는 소문이...



노들야학 소개 중.  
교장샘이 노래를 불렀다 함. — —+



진보적 장애인운동연대의 공식 명칭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로 결정됐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 앞날에 투쟁이 함께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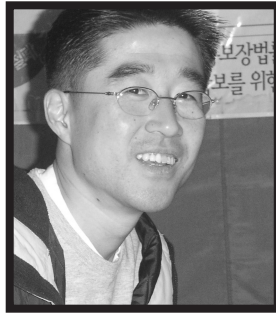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김도현 동지를 만나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설의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

?진보적장애운동연대체에 대한 고민은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조심씩 얘기되어 오다가, 2004년 7월 초에 진행된 '진보적 장애운동연대체 건설을 위한 장애인 운동 활동가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서울과 각 지역별로 1년여 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충북대학교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운동활동가수련회'에서는 명칭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정하고,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게 되었지요.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 그리고 보다 확장된 틀 속에서 2002년부터 진행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의 활동은 침체되어 있던 장애인중운동을 활성화하는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동권연대나 그 이후 구성된 다양한 권리별?사안별 공대위의 경우 기본적으로 단일 사안만을 다루는 연대체의 성격으로 인하여, 그리고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하는 한시적 투쟁체의 위상을 가짐으로 인하여, 장애인 문제 전반에 대해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을 수행하는 데에는 일



정한 한계를 지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장 투쟁에 함께하고자 하는 각 단위들은 사안에 따른 여러 개의 연대체나 공대위에 참여하며 중복적인 논의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보다 중장기적인 전망을 만들어 내는데 역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경우에는 전체 사회운동과의 관계에 있어 이미 이동권이라는 사안을 넘어서 진보적 장애운동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요구받아 왔으며 일정 정도 그러한 역할을 담보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조직의 형식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기에는 또한 일정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밑에서 논의되어 오던 새로운 진보적 장애운동 연대체건설이는 과제를 공식화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정한 조건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목적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의 소멸로 맥이 끊어진 진보적 현장 투쟁조직의 복원입니다. 한국 사회의 진보적 장애운동은 80년대 후반 전반적인 사회변혁운동의 기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흐름의 영향을 받은 청년 모임이 결성되면서 그 씨앗을 뿌리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6년 9월 창립된 ‘올림터’는 장애인 문제를 제도 내의 문제 이외에 변혁운동으로서 고민하기 시작한 최초의 조직이었다고 평가되지요. 그리고 그러한 운동은 이후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장청)와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전장협)으로 계승됩니다. 그러나 전장협이 98년 말 한국DPI와의 통합으로 사라지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운동의 대중 현장 투쟁을 이끌어가갈 구심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러한 현장 투쟁조직의 복원이라는 의미와 목적을 지니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는 보수화되어가는 전체 장애계의 흐름 속에서 독자적인 대안세력의 구축입니다.

잘 알다시피 현재 장애인계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라는 거대 사단법인 조직이 그 흐름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장총에 대하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DPI,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중심이 된 장총련은 당사자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구별 정립하고 있지만, 양쪽 다 근본적으로 이익단체로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대정부 정책파트너와 장애인계에 대한 대표성 및 예산 지원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올해 경북도청 점거투쟁이나 인천교육청 점거투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자신의 기득권과 이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체 장애인중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지요. 결국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고자하는 단위들이 독자적인 대안세력으로 뭉치지 않는다면 장애인운동의 미래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져 왔던 현장 투쟁의 전국화입니다.

전장연은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전국조직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치열

한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은 이후 자발적인 지역 모임을 구성하도록 추동하는 한 계기가 되었으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활동과 맞물리면서 자체적인 지역 연대체의 건설까지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새롭게 건설될 진보적 장애인운동 연대체는 이러한 흐름들을 연결하고 확장하여, 단지 서울만이 아닌 한국 사회 전역에서 장애인 대중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투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해내고자 하는 것이지요.

## 2. 진보적 장애인운동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보적 장애인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내에서도 ‘진보’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운동의 목표 및 전망과 관련해 얘기해 보도록 하지요.

운동이란 기본적으로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어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바꾸어 내려면 정책과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운동을 이야기하는 모두가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과 제도를 바꾸어 내는데 있어 하나의 한계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존재하는데,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의 ‘통념’ 내지는 ‘상식’(어렵게 얘기하자면 체제의 논리 내지는 이데올로기)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장애인이 처한 삶의 조건 및 이와 연관된 제도의 경우 어떤 부분은 이러한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반면, 어떤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라는 것 자체가 장애인이 처한 삶을 억압하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라는 구호는 노동 운동 진영에서 제기 된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 중심 사회, 생산력 중심 사회의 상식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진보적 장애인운동은 장애인의 삶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상식' 에도 보더라도 미달되는 부분을 바꾸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한 '상식' 자체를 거부하고 깨뜨려서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해방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운동을 넘어, 상식 자체를 바꾸어내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국가 권력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취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억압과 차별에 대한 대중의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 권력은 이를 힘으로 탄압하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를 어르고 달래려고 (어떻게 얘기하자면 포섭 하려고)합니다. 그 전형적인 방식이 저항 세력의 상층부에게 일정한 권력을 부여하고, 그러한 조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권력의 술수에 놀아나게 되면, 장애인운동 단체는 전체 장애 민중의 권리를 대변하는 세력이 아니라, 이를 적당히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자조직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보적 장애인운동이란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여, 국가권력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조직된 힘으로 국가권력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 가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일 겁니다. 아무리 진보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조직이 관료화 되고 상층부의 협상력에 의지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국가의 권력과 돈의 힘에 포섭되기 때문이지요.

### 3. 전장연의 현재적 조건과 앞으로의 전망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어느 순간 똑딱 만들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지난 4년간의 치열한 현장 투쟁과 이를 통해 형성된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제기되는 몇 가지 과제가 분명히 존재하겠지요. 첫 번째는 앞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단순히 새로운 연대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내용에 대해 합의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이념적 통일성일 텐데요, 이러한 부분은 운동이 소위 잘 나갈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물질 기반을 형성해 내는 것입니다. 앞서 국가 권력이 운동단체를 포섭하고 타락시키고자 할 때 가장 쉽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거칠게 얘기하면 돈으로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직을 운영해 내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물질 토대를 형성해 낼 수 있어야 하겠지요.

세 번째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을 기반으로 조금 더 두터운 활동가 층을 형성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가층이 협소할 경우 우리가 수행해내야 할 많은 일들에 과부하가 걸릴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정보가 집중됨으로 인하여 평등한 소통과 조직의 민주화를 활성화 시켜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몇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만 기울여진다면,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 노들의 인생



## “보고싶은 얼굴들” - 김명학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아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야학을 할 때, 서로 간의 고민들, 또 어느 땐 서로에게 아픈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그 또한 우리들의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야학생활을 하면서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얼굴들도 그 야학에서 배운 소중한 것들을 얻어서 사회 각자 분야에서 자기의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요? 나는 그런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네들의 땀들이 지금 우리노들을 존재하게 하고, 검정고시, 장애운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의 원동력이라고 감히 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노들인은 영원한 노들인 입니다. 우리 함께 들을 이끌어 갑시다. 많이 보고 싶은 얼굴들 우리 만나는 날까지 몸 건강 늘 하세요. 그럼 안녕히...

“인간해방, 장애해방 그날까지 투쟁!”

# 노들의 일상



## 노들의 12번째 생일을 축하 합니다!!

노들은?

'다른 세상' 을 꿈꾸고,  
다른 세상을 만들고 또 살아갈  
'다른 우리' 를 꿈꿉니다.

그것은 교실 속에서 시작되지만,  
그 속에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두 칸 교실 속에 갇힌  
우리만의 아름다운 교육공동체가 아니라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것이 노들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교실 문을 활짝 열어 재끼고, 아니  
일상의 모든 현장을 교실로  
더 열심히, 치열히, 살겠습니다.

빠앗긴 일상을 되찾고자함은,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대안적 일상을 설계하는 것과 같아,  
소소한 일상의 선택조차, 매순간  
실험이고, 책임감 있는 실천이었습니다.  
일상이 갖는 힘,  
그리고 12년 그 일상을 지켜온  
노들인의 자부심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지지와 비판,  
시원한 후원과 연대를 기다리며  
노들야학 문을 항상 열어두겠습니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의 터,  
노들장애인야간학교와 함께 해 주십시오

12주년  
개표기념  
열린강좌



8/4(목)  
“계급, 그리고 장애운동”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8/5(금)  
“여성 운동사를 통해본  
장애운동의 흐름과 제언”  
(송정문, 전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 ① 교장샘 축하 중
- ② 열심히 강연 중이신 김규향 동지
- ③ 연 이틀 만원이었다는 — —;; 객석.
- ④ 열심히 필기 중이신 현준이형.(뭘 적고 계신건지... — —;;)
- ⑤ 반면 그 틈에 떠들고 있는 기현과 조한나
- ⑥ 이틀 동안 고생해주신 수화 통역사 동지들 감사합니다.
- ⑦ 송정문 동지 강연 중
- ⑧ 교장샘과 한 컷!!



【 우리안의 이야기 - 7월 소식 】

# 노년의 인생

## 개교12주년 기념식

8/6(토), 6시, 정립회관 대강당



① 본 행사 전에 현직과 동문들의 놀이 한마당.

② 물에 머리를 넣고 있는 것은 왼쪽부터 동엽, 기동, 호식

③ 보치아 경기 중

# 노년의 인생



① 수박 먹고 씨 뱉기.  
도통 모든 게임이 좀 지저분 했다는... 좀 그랬다는...

② 자세들 잡고 분행사 시작

③ 장애여성 공감 박영희 대표님의 축사

④ 사회를 보고 있는 교사대표 흥







① 정립회관노조 김재원 지부장님의 축사

② 노들의 역사가 묻어나는 사진들...

노들 12년 역사가 정립회관 강당을 휘휘 둘러 빠르게 들어왔다.

③ 동엽이 형이 밤새 만든 12주년 기념 영상.

④ 연영석 동지의 축하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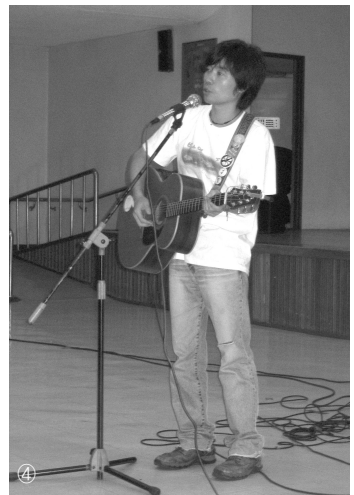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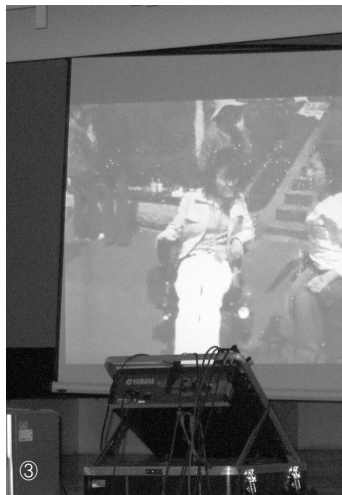
이후에 찐한 뒷풀이 자리가 흥청망청~~~~

언제나 그렇듯 우리에게 뒷풀이 사진이란 없다.

누가 뒷풀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겠는가???

그저 마냥 날뛰고 놀았다고 전할 수밖에...

노들 12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



# 노동의 인생

예전에 학생회 활동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일들과 해야만 하는 일들 중 무엇이 중요하냐?' 고 묻는 질문에 나는 '하고 싶은 일' 이라고 했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직책을 처음 맡을 때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실제로 직책을 맡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의 못하고 해야만 하는 일들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다. 왜냐하면 해야만 하는 일들은 거의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일들이며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이다. 그리고 어떠한 직책을 맡더라도 해야만 되는 일이 꽤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도 잘하면서 직책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직책을 맡아서 조금만 있으면 처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은 온데간데없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라도 잘 하자' 라는 생각이 들뿐이고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해야만 하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일의 신뢰를 깨면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자기가 의미를 찾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는 말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되는 일이 일치되는 것이 가장 좋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야학에서의 현재 나의 모습은 하고 싶은 것도 해야만 하는 것도 어느 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은 생색만 내고 해야만 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쉬운 물음에 나는 그래도 역시 답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깨우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은 해야만 되는 것은 뒤로 한 채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이 정말 하고 싶고 정말 잘 하고 싶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일도 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야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난 운전이라는 것을 함께 했다. 물론 그 일 자체는 무식한 노동이지만 나에게서는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멋모르게 한 지 두 달이 지나 그 '운전' 이라는 일이 부담되고 압박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었다. 그 '운전' 이 나에게 있어 야학 활동 동안 해야만 하는 일이 될지, 하고 싶은 일이 될지 말이다. 그래서 시작되었던 것이 그 '운전' 을 나에게 있어서 하고 싶은 일로서 만드는 싸움이었고 난 그 해 운전을 시작한 지 석달이 넘으면서 심각한 압박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 되었다.

사무국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업무 자체는 단순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거의 할 수도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실제로 하고 싶은 일들도 거의 없어졌기도 했다. 단순히 '내가 처해있는 공

간에서 최소한의 것만 지키자' 라는 의무감만이...

##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노들야학 사무국장 좌동엽

나는 분명히 이 공간이 좋다고 그랬고 의미있다고 당당히 밝혔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는 그것을 지켜내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본다. '좋아한다' 라는 고백을...

'좋아한다' 라는 것은 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오는 것 같다. 좋아한다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할 것들, 해야만 할 것들, 회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말이다. 좋아한다는 일은 그렇게 기쁜 것 같다. 좋아한다는 의미로 자신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을... 그것이 그 증거니까, 그 '좋아함' 을 다시 찾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들이 이 공간에서 일치하기를 나는 바란다.

# 노들의 인생

그게 2001년 8월 23일 목요일이었다. 만4년... 사람들이든, 조직이든, 뭔가를 미치게 좋아해도, 2년을 넘기지 못하던 나인데... 4년이라... 4년전.. 나는 임용고사를 준비해야했던 (혹은 그것밖에 대안이 없었던) 사범대 4학년이었다. 그해 겨울, 노량진 교육학 학원을 끊고, 선생이 되게 해주셨던 스타강사가 죽 늘어놓는 실로 엽기적이라도 간략한 교육이론들의 “핵심”을 들으며, 다시한번 내가 대한민국의 수험생이 되었구나, 절망하던 날. 고딩 시절 선착순달리기가 떠올랐다. 앞대가리들을 걸르고, 또 달리고, 또 걸러내고, 또 달리고... 마지막 꼴찌 그룹을 만들어내야만 끝나던 그 선착순달리기. 여유있게 호루라기 들고 우리를 향해 웃던 그 체육선생. 죽여버리고 싶도록 미웠던 그 체육선생. 반항하지 못하고, 달리라면 달려야했던 우리.. 내 뒤에 몇명이 더 있다는 그 재수없는 안도감.. 다시는 선착순달리기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는 달리라해도, 안달리고 버틸라 했는데... 받은 빠지고 받은 나가며 학원 수업을 들을 때마다



## 2001년 8월 23일 목요일 내가 처음 야학에 온 날이다.

교사대표 **홍은전**

다 매번 그들 미친거 아니야! 라고 미친척 소리지르고는 뛰쳐나오는 상상을 했었다.

물론, 그렇게 못했다. 나는 내 스물세살 1년을 선택한게 아니라, 선택당해버렸다고 썼던 그 일기를 아직도 기억한다.. 스무살 이후 처음으로 가져본 자유와 선택권을 마음껏 누리고 ‘실컷’ 하며 살았던 나에게 그건 참으로 굴욕적인 일이었다. 그리고는 압박감에 술이 줄고, 담배만 늘어갔던 대학4학년 생활을 시작했다.

도서관의 에어컨 바람을 즐기고, 저녁즈음 나와 도서관 출석부에 싸인하는 압박함을 즐기고, 공부도 나름대로 재밌는거라고, 자위하고 처음으로 받아본 4점대의 평점을 즐기고, 혹은 자조하고, 교생실습 나가 만났던 애들을 떠올리며 내 꿈을 다시금 확인하고, 혹은 세뇌시키고, 그렇게 잘 견뎠다.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불

쑥불쑥 비집고 나오는 너 지금 뭐하는거니,라는 물음. 꼭꼭 눌러도 부지불식간에 덤벼오는 그 물음. 몰골과 함께 정신마저 황폐해져 가는 듯 보였던 나와 내 주위 사람들... 난 뭐하고 있을까. 난 뭐가 되고 싶길래, 이렇게 굴욕적인 상황을 참고 지내는걸까.

선생님 그거 꼭 이렇게 돼야 되는건가? 이런것도 잘 참아야 선생님 되는건가? 안참고 안하고 선생님 되지 말까? 일단 선생님 되고나서 고민 시작할까? 근데 난 선생님이 되고 싶긴 한걸까? 왜 되고 싶은건데?

그때 처음으로 ‘심장이 터져버릴거 같다’는 느낌을 알았다. 말수가 줄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두렵고, 그런 내 눈치를 보는 친구들에게 미안했고, 그 친구들이 안타깝고 무엇보다 내가 너무 불쌍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구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냥 마음껏 고민하자, 마음껏 방황하자, 결심했다. 바닥을 칠 때까지. 뭐든 다시 하고 싶을 때 그때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가장 열심히 방황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들야학에 왔다.

4년. 난 뭐가 되었을까. 난 뭐가 변했을까. 변하긴 했을까. 예의상 그런 질문 해보지만. 상관없다. 나는 행복하다. 하루종일 돈계산을 해도, 술취해 얼굴을 갈아먹어도, 수업중에 \*\*이와 되지도 않게 유치한 신경전을 벌여도, 나는 좋다. 가끔 우울해도, 짜증나도, 자존심이 상해도, 누가 나한테 상처를 받아도,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어도, 그걸 수습하느라 또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해도, 지금 나는 좋다. 하루를 살아도, 선택 당하는게 아니라, 선택하며 살고 있는 지금의 내가 좋다. 여전히 노들야학을 ‘선택’ 하게 만들어준 야학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그런 노들야학을 ‘선택’ 한 홍은전을 사랑한다.

4년... 나는 여전히 노들야학과 열애중이다.^^\*



## 다시 시작되는 버스타기

이명박 시장은 지난 6월 27일 [미디어다음]과의 인터뷰에서 '약자를 위한 배려로 행정을 펴는 시대'라 언급하면서 서울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배려라 한다. 또한 서울시가 440군데 지하철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많은 도시가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아직 설치되지 않은 40군데를 문제 삼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곳인데 반대만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명박 시장은 [불도저 이미지는 편견, 환경 문화 복지 시장 꿈꾼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서울시 지하철 문제에서는 완전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으며, 불도저 이미지를 넘어 파렴치한 사기꾼의 면모를 갖추었다. 또한 '이제는 기득권자가 아닌 약자를 위한 행정을 펴는 시대'라 설파하고 있지만, 그는 철저하게 기득권자로서 '약자'라 일컫는 사람들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자신의 대선을 향한 탐욕에 정치적 선전꺼리로 활용하고 있을 뿐임을 밝힌다.

먼저 서울시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은 2001년에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지하철리프트에서 떨어져 죽고, 2002년에 발산역에서 또다시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관계당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었다. 책임에 대한 인정과 공개사과는커녕 심지어 유족에 대한 배상마저 장애인의 잘못이라고 치부하면서 최소한의 양심적인 책임마저 회피했었다.

이명박 시장은 46개 역사에 대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문제 삼는 집단을 반대만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라 했다.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하철 46개 역사에 대하여 총 97대의 리프트를 설치하겠다고 한 이유에는 민원, 보도폭, 구조물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민원과 보도폭의 문제는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지와 돈의 문제인 것이다. 도로 외부로 나오는 엘리베이터의 구조물 때문에 상가가 있는 지역의 간판이 가리는 문제나 도로폭이 좁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구조물의 문제 또한 정책의지와 재정의 문제로 보여 진다. 그러나 정녕 서울시의 주장대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장이 표현한 '반대만 하려는 사람들'과 전문가들과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함께 46개 역사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서울시장은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려는 사람들로 몰아갈 수 있는가. 그 또한 서울시장은 진실을 왜곡하고 본질은 눈에 가리고 국민을 향한 대국민 사기전인 것이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성명서- 中

서울시의 어처구니 없는 약속파기는 다시금 우리에게 더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다시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이면 우리는 투쟁을 시작 할 것이다. 우리를 기만한 저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힘으로 바꾸어 낼 것이다.





우리는 새롭게 단장했다.

근사하게, 멋지게, 또 품위있게.....

언젠가 기수처럼 잠깐 깃발을 들고 있었다.

그때 너무 자랑스러웠다! 내가 노들 야학생인 것이.....

바람의 펄럭이며 행진하는 깃발을 볼때면

나는 속으로 이렇게 외친다. 노들 화이팅!!!

이정민

## 7월 후원

## | 지로후원 |

(주)리폼시스템, 양원일

## | 은행이체 후원 |

강일성, 고기연, 고기연, 고명선, 권현실, 김기동, 김기형, 김동호, 김미선, 김민정, 김보매, 김소희, 김용철, 김채진, 박경순, 박근성, 박미영, 박성희, 반영신, 배상균, 배태섭, 서금석, 서정희, 손우정, 안성희, 안수희, 양혜영, 여연주, 오선실, 우복남, 유별라, 유정옥, 윤종배, 이마트단체지원, 이민규, 이상란, 이영미, 이지은, 이지은, 이창수, 이현숙, 이호중, 전윤우, 정진용, (주)루트컨설팅, 천룡사목보, 최양희, 행동하는의사회, 현정훈, 힘1, 힘내세요, SLS수능학원

## | CMS 후원 |

강경완, 강광숙, 강병완, 강정자, 강주성, 강현정, 고아라, 고양숙, 고제현, 구현아, 권순성, 권재수, 권태국, 김기동, 김기룡, 김나미, 김덕훈, 김도현, 김도훈, 김동효, 김동희, 김명학, 김문호, 김미애, 김범식, 김비호, 김선옥, 김순주, 김신자, 김애경, 김연선, 김연희, 김영희, 김용수, 김우혁, 김유선, 김은미, 김은숙, 김은천, 김재경, 김정숙, 김정연, 김지수, 김창보, 김태인, 김혜옥, 나선영, 노혜련, 류승화, 류정숙, 마미주, 문예진, 민점식, 박경혜, 박경화, 박누리, 박민영, 박상일, 박은정, 박장근, 박하연, 반정희, 백미화, 백재선, 서명아, 서미선, 신복순, 신승애, 신현훈, 심귀향, 심미경, 심한권, 안문필, 안민희, 안소진, 안희옥, 양현준, 어수진, 엄기양, 여준민, 옥샘, 원윤아, 윤두선, 윤정미, 윤희, 이경희, 이미랑, 이미영, 이미자, 이석원, 이순용, 이승주, 이알찬, 이은숙, 이은정, 이재령, 이정인, 이제현, 이종실, 이주옥, 이지은, 이지혜, 이철우, 이필규, 이해창, 이현숙, 이현진, 이흥규, 이흥호, 이희국, 임춘하, 임혜숙, 장선정, 장영숙, 장효정, 전경옥, 전권세, 전민숙, 정영란, 정영석, 정용균, 정진수, 정희덕, 조미정, 조성준, 조성진, 조연희, 조은경, 조자영, 조현숙, 좌동엽, 좌미경, 좌혜경, 천종민, 최경숙, 최경일, 최동호, 최미란, 최선희, 최우영, 최정숙, 최정은, 추경미, 하성우, 한남희, 한명숙, 한지선, 한지훈, 한혜선, 허건, 허진태, 허창, 홍갑출, 홍송대, 홍은선, 홍은전, 홍진표, 황해진

【 함 . 께 . 하 . 기 】



##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모집

장애 인구의 50%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국민으로 누렸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마저 누리지 못해 척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은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http://www.nodl.or.kr>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3 정립회관 교육관 3층

- 
- 교사지원 문의 02-766-9101(사무실)
  - 02-446-9101(야학)
  - 016-9480-0722(교육부 차장)
  - master@nodl.or.kr

## 노들장애인야간학교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갈 후원인을 모집합니다!



### ●●● CMS 후원 가입 안내

CMS 후원은 후원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새로운 후원방식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출금에 필요한 정보(출금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저희 야학(담당자)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766-9101 / 011-9194-7713(홍은전))

### ●●● 은행 자동이체 신청 안내

통장,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은행의 자동이체용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 계좌 번호 ]

국민은행 835-21-0312-815  
 기업은행 133-025369-02-019  
 농협 029-12-200545  
 신한은행 353-02-276437  
 외환은행 170-19-30457-4  
 우리은행 470-07-035448  
 조흥은행 904-04-25520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 지로 번호 : 7648533  
 전구좌 예금주 : 박경석